

미가서 강해 (1)

-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미가 1:1-16; 마태복음 20:1-12

1. 미가서의 주제와 미가 예언자의 활동 배경

1) 주제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야’의 준말입니다. ‘미’는 ‘누구인가?’ 하는 뜻이고, ‘가’는 ‘같다’, 그리고 ‘야’는 여호와를 가리킴으로, 이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18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이 이름에 그의 사역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7:18부터 미가서의 마지막 구절까지를 읽어 봅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 7:18-20)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인애가 있는 분이 과연 누가 또 있겠는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에서 과연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이러한 것이 미가 예언자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전한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예언서의 마지막 대목에서 사죄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에게 큰 죄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미가서에서는 그 사회에 공의가 없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겹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2:8-9)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도 불의를 행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 아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궤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레와 야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좇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소 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6:9-16)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예언자들도 공의를 전하지 않고 뇌물에 흔들렸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이야기해 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싸우려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3:5)

이렇게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려 하셨습니다.

미가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 구절만큼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미가서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5:2)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이지만 거기서 다윗 왕이 나왔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였던 것처럼, 장차 그 동네에서 태어나실 다윗의 후손도 그 백성에게 복음의 큰 소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722년에 북 왕국의 멸망을 겪었고 남 왕국 또한 701년에 산헤립의 침략을 당하는 격동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지나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요구하시며 또한 장차 다윗의 후손을 보내어서 그

나라를 다시 온전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찬송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더욱 큰 소리로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가?’ 하고 찬송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몇 주간 우리가 미가서를 함께 읽어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 가게 되기를 구합니다.

2) 예언자 미가 시대의 정치와 경제

예언자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하였습니다(1:1). 요담은 기원전 750-735년에, 아하스는 735-715년, 히스기야는 716-686년 어간에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연도를 놓고 보면 우리가 아는 중요한 연도,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가 그 사이에 끼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기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미가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예언자였습니다. 멸망을 앞둔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의 계보는 여로보암 2세(733-753) 말기부터 해서 스가랴(753-752), 살룸(752), 므나헴(752-742), 브가히야(742-740), 베가(752-732), 호세아(731-721)로 이어집니다. 계보의 연도들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듯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 이후에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이 계속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급격하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급속도로 쇠락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내적으로 몰락하는 징후가 아주 급속도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또한 외적의 침입이 가까이 에 있던 시대에 예언자 미가가 활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란하였던 기원전 8세기에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이를 테면 남쪽에는 이사야, 북쪽에는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격변의 시기에 처하여 있던 그분의 백성에게 특이할 정도로 예언자를 많이 보내셨는데, 이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회개하면 살 길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그분은 반역하는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와 소명이 있었는데, 미가 예언자도 다른 예언자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1:1을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호세아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미가 예언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북 왕국만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을 아우르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고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도 한 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가 예언자는 요담에서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 동안, 거의 40-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하였습니다. 죄인의 심판과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데에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백성만이 아니라 후대의 신자들을 위하여서, 그가 평생 전한 내용을 미가서에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앗수르의 산헤립이 남유다를 유린하였던 역사적 배경에서 이 책을 함께 읽는 동안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언자의 모습도 보고, 무엇보다 예언자를 보내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써, ‘과연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고백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심판 경고

1) 천지의 증거

2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때에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야기 방식은, 옛적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신명기 32:1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 하시면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신 것인데, 복음의 내용은 사람의 영혼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온 세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한 이사야 예언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사 1:2) 하는 말로 그의 예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가와 이사야는 모두 당대의 사람들이 모세 때에 맺었던 건국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음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하늘의 보좌에서 증거하심

3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고 계시지만, 2절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성전에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3절의 맥락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곧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높은 곳에 있는 성전은 하늘의 성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데서 주목하여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온에 자기 이름을 두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거나 거기서 말씀을 내리시지 않고 하늘의 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조금 더 실감나는 면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우상 제단의 모양을 그려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지어 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을 보면 당시의 백성은 그저 헛되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을 용도 폐기하시고, 지금 하늘의 성소에서 친히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들을 귀가 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3)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철저히 심판하심

4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5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이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6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공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심판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땅의 높은 곳’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고, 강림하시는 목적도 심판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이 아니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모두 다 높은 산 위에 건설된 도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오므리가 왕조를 개조하면서 사마리아 산 위에 성을 건설하였고, 그 아들 아합은 거기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또한 예루살렘도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높은 도성들에 거하는 백성의 죄를 징벌하려고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이 말씀은 또한 상징적으로 ‘사람들의 높은 마음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뜻도 포함합니다. 예로부터 권력과 재물이 풍부한 수도에는 사람들이 몰려 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였는데, 주께서는 두 산성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높아진 자들 또한 모두 함께 심판하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높은 곳을 ‘밟으실’ 것입니다. 누가 밟힘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비참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밟으실 때에는 다른 사람이 밟는 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밟으시면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기를 불 앞에 녹아내리는 초(‘밀’, 蜜)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밟으시면 산 위의 도성이나 거기 거하는 백성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자는 불과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불 앞의 초가 녹아내리듯, 골짜기에 급류가 흐르듯, 그분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은 철저히 파괴되고 황폐하여질 것입니다.

미가서의 이 처음 몇 마디 말씀은 참으로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의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해도 밤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인데, 지금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증인으로 삼아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사형 선고를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선다면, 듣는 사람은 즉시 하던 일들을 멈추고 회개하여야 마땅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끓어오르려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 심판의 이유: 우상 숭배

7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훼파하
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어서 예언자는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이유인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는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생처럼 간음하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 부요함이 기생의 몸값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사마리아: 야곱의 허물

북이스라엘은 처음 여로보암의 통치 이후로 금송아지를 섬겨 왔고, 오므리 왕 때에 사마리아로 천도한 이후로 그 아들 아합에 이르러서는 바알 신전을 크게 짓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하면 우상 섬기는 도시로 널리 알려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냐?’ 하면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은 이 말씀이 바알 우상 숭배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사마리아가 수도로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비교적 안정을 누렸습니다. 오므리 왕조와 그다음 예후 왕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상대적인 안정을 허락하셨고 또 그 기간에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므리 왕조 때에는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내시고 또 예후 왕조 때에도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예언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엄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조짐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32년에 갈릴리 지역 백성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 큰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갈릴리 포로 사건’이라고 따로 이름 붙여지기까지 하였던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멸망하기 불과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심판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불 앞의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6절에서는 사마리아를 들의 돌무더기같이 다 파괴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쌓았던 지대가 모두 훼손되어 돌들이 쏟아져 내릴 것이고, 더불어서 우상들도 다 파괴되고 불살라질 것입니다. 성읍이 건설되기 전에 그 산이 포도원이었던 것처럼, 그 땅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실 것입니다.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은, 우상 숭배에 동반되는 음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신전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낸 돈으로 목상에 금을 입혔습니다. 음행의 값으로 목상에 금을 입힌 것인데, 앗수르인들이 와서 성을 다 파괴한 후에는 목상에 입힌 금들을 모두 벗겨 갔습니다. 목상은 불태우고 음행의 값으로 얻은 금은 점령군들이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땅에 가져간 금으로 다시 우상을 만드는 데에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생의 값으로 모

왔은즉 그것이 기생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역사상에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불 앞에 초가 있으면 녹아서 원래의 형태가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크고 영화로웠던 궁전이나 여러 건물들, 우상의 전들을 다 없애고 황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17:13부터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각 예언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대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좇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계속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이 세상에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2) 유다의 산당

그런데 심판은 사마리아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또한 ‘유다의 산당은 무엇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십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의 유다 왕국을 보면, 요담은 산당을 제하지 않았고 뒤이은 아하스는 다메섹 우상 제단의 모형을 예루살렘 성전에 재현시켜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사마리아와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산 위의 동네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참조. 마 5:14-15), 그들은 산 위에 높이 보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겨도 괜찮은 모양이로구나’ 하는 인상을 다른 지역에 속속들이 퍼뜨리고 있었습니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민족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택함 받은 백성이, 이 교적인 풍습을 다른 지역에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1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1) 백성의 완고함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교훈을 얻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열두 시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지금 열한 시 사십 분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문 코앞까지 이르렀고 이제 너희가 교훈을 받지 않으면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 성소에서 말씀을 발하신다는 첫 부분에서부터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장의 평안함에 빠져서,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교의 단을 쌓아 놓은 이 현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일인지에 대하여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백성을 향하여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우상이 자기를 잘못 섬긴다고 마치 초를 녹이는 불처럼, 골짜기에 쏟아지는 물처럼 심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우상이 여호와와 같이 언약적인 진노를 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높은 곳을 밟으시고 심판을 행하시면, 유다와 사마리아의 영화로운 도성들과 그 많은 재물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지고 전에 포도원일 때와 같은 들판으로 바뀌고 들판의 돌무더기처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엄위하심에서 여호와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위로운 심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일에서 다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장차 마지막 심판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세상의 재물로 만족하던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하여 신절을 지키고 살았던 자들에게는 주께서 하늘의 형상을 입혀 주시고 어린양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엄위에 있어 여호와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주께서 아직 말씀으로 그분의 엄위를 나타내시며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근본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가 예언자는 이러한 심판의 말씀과 더불어서, 장차 베들레헴에서 나실 아이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심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데서도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 그리고 죄 사함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 또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은교회. 2000년 12월 17일)

응답송: 시편 86편